

집편 회학어선조

한글

昭和十九年四月十四日 第三種郵便物認可
每月一回一日發行

천지 자연의 소
리가 있으면 천지
자연의 말이 있나
나라。
— 靑 麟 志 —

차 목

조선말 임자씨의 토	李 克	(1)
朝鮮語外 朝鮮文學	朴 英	(5)
朝鮮語讀本 卷一 指導例	沈 宜	(9)
중등 조선말본 길잡이	崔 鉉	(10)
朝鮮語讀本 語彙調査 (四)	李 浩	(13)
한글 연구 圖書解題 (2)	方 鍾	(17)
물음과 대답		(18)
標準語査定委員會 記事		(19)
한글 바꾸잡아쓰기 익힘		(25)
로빈손 無人絶島 漂流記		(33)
朝鮮歴史 講話 (二)		(30)
出版界 消息		(36)

第三卷 第二號 (二月號)

叻七錢

京城府鍾路三丁目九十一番地
朝鮮主日報社
 振替口座東京 一四六三六
 電話 先化門 五五七

319-2-3(2)=2

本會推薦良書

(一其) 나날이어는가 새로운綴字로 된책들

李允宰	金台俊	彼得譯	姜炳周譯	尹石重	尹石重	金泰午	張貞心	張貞心	毛允淑	梁柱東	金億	李殷相	田榮澤	李光洙	李光洙	李光洙	韓仁澤	沈薰	李泰俊
文藝讀本一、二	朝鮮歌謠集成	童話研究法	新撰童話法	잃어버린대기(童謠)	尹石重童謠集	雪崗童謠集	琴線(詩)	主의勝利(詩)	빛나는地域(詩)	朝鮮의脈搏(詩)	忘憂草(詩)	鷺山詩調集	聖劇殉教者	홍(小說)	李舜臣(小說)	端宗哀史(小說)	旋風時代(小說)	永遠의微笑(小說)	밤(小說)
、六〇	、八〇	、二五	、二〇	、五〇	、八〇	、八〇	、四〇	、七〇	、九〇	、五〇	、五〇	、七〇	、五〇	二、〇〇	一、六〇	二、〇〇	一、二〇	一、三〇	價定、八〇
〇六	〇八	〇二	〇四	〇四	〇六	〇四	〇四	〇六	〇六	〇四	〇四	〇六	〇六	二四	一二	一二	一〇	一〇	料送〇八
方信榮	徐相天	趙憲泳	襄成龍	襄成龍	韓稚振	韓稚振	韓稚振	柳澧基	金永義	宋鴻	金億	金克培	李順鐸	襄恩希	申明均	李允宰	金在喆	權憲奎	李殷相
朝鮮料理製法	現代鐵棒運動法	通俗漢醫學原論	朝鮮經濟現在와將來	朝鮮農村研究의準備知識	社會學概論	新心理學概論	宗教改革史要	基督敎史	松隱小論文集	現代實用書簡文	現代模範書翰文	한글鐵筆自習書	世界一周記	방애인소전	周時經先生遺稿	聖雄李舜臣	朝鮮演劇史	朝鮮留記略	朝鮮史話集
一、二〇	、六〇	三、〇〇	、五〇	、三〇	一、二〇	一、二〇	一、一〇	一、二〇	、四〇	、九〇	、七〇	、五五	一、二〇	、二〇	一、〇〇	、二五	一、五〇	、七〇	一、〇〇
一〇	一〇	〇六	〇四	〇二	〇八	〇八	〇八	一〇	〇四	〇四	〇六	〇四	一〇	〇二	〇六	〇二	〇八	〇四	料送〇八

◇다이내갓하應需 速迅 먼시하文注 로部版出本 을籍書 上以◇

조선말

임자씨의 밀자리도 (二)

이규로

一、임자씨의 밀자리도(根本格)

이 밀자리도는 스물 세가지가 있으나, 이것을 먼저 크게 갈라 보자면, 풀이씨와 잇닿는도(連用格)가 있고, 그 반대로 임자씨와 잇닿는도가(連體格) 있다. 풀이씨와 잇닿는도에는 또 임자말도(主語格)와 풀이말도(述語格)가 있다. 풀이말도에는 꼭있을도(必需格)와 보람도(補助格)가 있다. 보람도에는 맞대봄도(相對格)와 대중도(標準格)와 솜씨도(方法格)와 때도(境遇格)와 고어음도(引用格)가 있다.

1. 임자도(主格)。임자씨를 한 월(文章)의 임자가 되게 하는 것이니, 여기에는 그 쓰이는 자리를 따라 세가지의 다름이 있다.

1. 두루법(一般法)은 두루 쓰이는 토이다.

1가 (바침이 없는자 밀에), 1이 (바침이 있는자 밀에) 소가 누웠다.
말이 간다.

2. 남높임법(他尊法)은 말하는 사람이 남을 높이어 서 쓰는 토이다. 1게서, 1게압서(더높임)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하는님께압서 친지를 창조하시었다.

3. 케높임법(自尊法)은 말하는 사람이 케를 스스로 높이는대 쓰는 토이다. 1서.
나서 그리하였다.

2. 부름도(呼格)。월의 임자가 되는 그것을 부르는대 쓰는 토이니, 여기에도 그 쓰이는 자리를 따라 세가지의 다름이 있다.

1. 높사겸법(尊稱法)은 웃 사람에게 쓰는 것이다. 1(이)시여.

하느님이시여, 귀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시여 귀를 도우소서.

2. 맞사겸법(平稱法)은 벗하는 자리에 쓰는 것이다.

1(이)여.
바위여 이것을 보게.
복동여 귀 귀리 가게.

3. 낮사겸법(卑稱法)은 아래사람에게 쓰는 것이다. 또 두루법의 된다. 1야 (홀소리 밀에)。1아 (닿소리 밀에)



6818045

너라. 어라. 어라. 어라.

을 나타내는 토이다. |를 (홀소리 밑에), |을 (닿소리 밑에)。
도(他動格)。월의 임자가 남을 건드리는 것

아이가 개를 친다。
사람의 밤을 먹는다。

4. 한가지도(一致格)。풀이씨를 완전히 만드는데 꼭 있어야 될 월의 조각에 붙는 것이니, 임자씨와 한가지가 되거나 혹은 뒤집어됨을 나타내는 토이다. |가(홀소리 밑에), |이 (닿소리 밑에)。

너는 학자가 되겠다。
나는 병청이 되었다。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다。
키가 사람이 아니다。

5. 견줄도(比較格)。무엇을 서로 견주는데에 쓰는 것이다. |와 (홀소리 밑에), |과 (닿소리 밑에)

내 키는 네 키와 같다。
아우는 형과 다르다。

이 글씨는 저 글씨와 비슷하다。
6. 틀림도(不等格)。두 사이에 서로 틀림을 나타내

는 것이다. |보다。

아들은 아버지보다 낫다。

7. 쪽도(程度格)。어디까지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큼(=만치), |만

대도 솔만큼 좋다。

형이 아우만 못하다。

8. 비슷함도(倣似格)。거의 같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처럼。

잔나비가 사람처럼 생기었다。

9. 만남도(位置格)。곳에나 때에나 만나서 침을 나타내는 것이니, 여기에는 숨탄본법과(動物法) 숨안탄본법(非動物法)이 있다。

1. 숨안탄본법. |에(음측임음) 아니 반음에, |에서(음측임음) 반음에)。

소가 들에 누웠다。

아이가 방에서 땀다。

2. 숨탄본법. |에게(개), |더러, |한테, |게(남호임) 학생에게 책을 준다。

나더러 일을 하라고。

아이한테 칼을 주어。

아버지께 드리어라。

10. 떠남도(出發格)。곳에나 때에나 떠나는 침을 나타내는 것이니, 여기에도 숨탄본법과 숨안탄본법이 있다。

7, 숨안탄본범。1에게서, (11서)

나는 집에서 온다。

아침에서 저녁까지。

서울서 왔다。

8, 숨탄본범。1에게서, 1한테서

이 옷은 아들에게서 받았다。

말은 부모한테서 배운다。

11, 대임토(方向格)。곳이나 때에나 대이는 집을 나

라내는 것이니, 여기에도 숨탄본범과 숨안탄본범이 있다。

7, 숨안탄본범。1(으)로。

집으로 간다。

학교로 보낸다。

봄으로 미룬다。

한시로 들어간다。

9, 숨탄본범。1에게로, 1한테로, 1계로。

김씨에게로 넘긴다。

박선생한테로 돌려라。

할아버지께로 갑시다。

12, 부림토(使役格)。무엇을 부리어 쓰는 것을 나라내

는 토이다。1(으)로。

붓으로 쓴다。소로 발을 갈아라。

13, 따루토(獨立格)。다른대에 매이지 아니함을 나라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너는 너대로 해라。

14, 함께토(共同格)。여럿이 가치 하는 것을 나라내는

것이다。1끼리。

우리끼리 가자。

학생끼리 논다。

15, 막바지토(極端格)。마지막 끝을 나라내는 것이다。

1껏。

정성껏 하여라。

재주껏 만들었다。

16, 자리토(地位格)。어떤 자리를 나라내는 것이다。1

(으)로써。

임금으로써 나라일에 게으름수가 있다。

부모로써 자식을 가르켜야지。

17, 구래토(敢行格)。억지로 하는 것을 나라내는 토이

다。1(이)길래, 1(이)한테(관대)。

어떤 사람이 길래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올가。

내길래 그 일을 하였다。

그것이 무엇이 한테 사람을 괴롭게 만들가。

네가 누구 한테 내게 달려들어。

18, 만일토(條件格)。조건이 불는 것을 나라내는 토이

다。1(이면) 1(이)거든。

소면 몰라도 사람이 면 그런 짓은 아니하리라。

朝鮮語와 朝鮮文學

—한글統一運動과 나의若干感想—

朴英熙

文筆家は 言語를 사랑한다。자기의 言語는 즉 文筆
 家들의 生命이다。얼마전에 發表된「한글 มาตรฐาน
 법 통일안」이 조선사람의 巨대한 期待中에서 朝鮮語
 學會에 依하여 發表되었다。이에 朝鮮語를 가지고 날
 마다 다르고 꾸미며 골르고 매만져서 理想과 感情을
 表現하는것을 일로 삼는 사람들 중에 한사람으로서가
 지고 있는 약간의 感想을 덧붙이겠다。

나는 지금 조선말에 관해서 특특히 생각할 시간을
 갖고, 또 이에 몇가지의 感想을 쓰게 되매, 이 感想
 의 優劣은 말하지 말고라도 나는 참으로 기쁘게 生
 각한다。이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러한 裏面에 自己反省을 하게 되면 또한 부끄러운
 마음을 이루 말할수 없다。작은 힘이나마 조선의 文學
 建設에 관하여 口로 말하고 붓으로 寫은지가 한해
 두해가 아니었으나, 아직껏 조선말에 관하여 허수허생
 각하였음은 또한 모순같이 생각된다。世界를 알려는마

음으로 外國語의 책 퍼지를 우리들은 뒤적거리며, 難
 解의 文法을 외우느라고 밤을 그 몇번인지 새웠으나,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것을 알려고 애쓴일이 없고, 우
 리의 言語에 관하여서 밤을 새며 研究한 일도 비교
 적 다른것보다 없었던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理由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알아야 하며, 자기들의 生活을 알
 아야 하며, 자기들의 言語를 잘 알아야 한다는것을 모르는바
 가 아니었으며,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남을 研究할 때 도리어
 우리는 우리를 忘却하고 곧 남이 되고 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또한 모르는바도 아니었으나, 조선의 모든것은 散亂하여
 整頓되지 못하며, 모든것이 감추운채로 發見되지 않았으며, 내
 버린채로 거두지 못하여서 後世의 人들을 迷路하게 하였음은
 이 한낱 歷史의 運命이려니와, 이 過去의 不運한것을 그대로
 放棄하지 않고, 새로운 研究의 開拓者는 곧 現代의 우리들이
 아니면 아니된다。조선의 學者, 文士, 科學者는 조선의 文化를
 위하여 研究와 探索을 해야 할것은 물론이려니와, 남의것을 배
 움은 곧 내것을 만든키의 힘이며, 내것이 完全히 된 후에는
 비로소 世界에 寄與하는것이 있을것이다。
 조선말—朝鮮語는 한시도 우리와 떠날수 없는것이다。그럼
 에도 不拘하고 내버린채로 오래동안 찾지 아니하고 거두지 않
 았으니, 이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아침해가 밝게 떠오를 때
 나, 저녁하늘에 아름다운 星을 바라볼 때나, 혹은 달을 치어
 다볼 때나, 마음의 구슬픈 일을 당할 때 또한 붓을 들고 종
 이 위에 나의 感想과 情緒를 記錄하고자 할 때 조선말은 일
 마나 귀엽고 아름다운것일까。오! 아름다운 조선말이여!

그러나 나의 感情의 細密한 갈래와 나의 情緒의 緻密한 形容을 記錄하고자 할 때 나는 激情된 병어리 모양으로 가슴을 쥐어뜯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하여서 부르짖는 때도 있었다. 오! 잃어버린 조선말이어! 植物의 이름 한개꽃의 이름 한개를 우리말로 알지 못해서 몇 시간씩 쓸대없이 外國語 辭典만 뒤적거린적도 또한 한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만일 「朝鮮文學」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또한 우리들의 生活이라는 것은 무엇을 表示하는 말인가? 朝鮮文學이라는 것은 朝鮮語가 없이는 無意味한 말이다. 따라서 朝鮮民族이 없이는 朝鮮語가 또한 無意味하다. 그러므로 民族이 있으며 그 言語가 있으며, 그들의 文學이 있는 것이다. 世界가운데 조선말이 있다는 것은 朝鮮民族이 存在한 證據며, 朝鮮文學이 있다는 것은 역시 조선사람이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朝鮮民族이 있는 이상, 어찌하여 조선말이 衰退하여가며, 또한 朝鮮文學의 不振이 이처럼 심하랴. 여기에는 여러가지 經濟的 政治的 民族的 諸般 歷史的 運命이 附隨되어 있으나, 이것은 이곳에서 論外로 한다. 當面한 言語에 관한 問題만을 中心으로 하려고 생각한다.

내가 일찍 웰스의 著書에서 朝鮮語에 관한 것을 읽고, 일층 더 우리글에 대한 發展을 생각하여 보았으며, 印度나 愛蘭이나 其他 歐美 諸國의 著名한 文學的 作品을 읽을 때마다 또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正確함을 探索하여 보려고도 하였다. 우리는 이 各自의 「퍼더·통」에 의하여 表現된 그 作品, 그에서

民族의 生活과 風俗과 理想과 苦惱를 明白히 알수 있었다. 朝鮮民族의 歷史는 어느 文明한 民族보다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年代와 文化를 가지었다. 그러나 現今의 朝鮮語는 여러가지의 比비한것을 느끼게 되니, 첫째로 同一한 意味를 表現하는 글쓰는것이 統一되지 못하여, 甲은 甲대로 乙은 乙대로 제 마음대로 기록하게 되며, 語彙는 分散하고 忘却되어 버렸으며, 文法은 더욱이 發展할 餘地가 많다. 이것은 조선말이 없거나 不完全한것이 아니라, 조선말은 그 音의 具備한것과 正確과 美麗한 語彙를 使用하지 않고 찾는 사람이 없었기때문이다. 근자에 보면 조선말의 用途는 일층 縮어져가는 것 같다. 우리들의 日常 會話로부터 社交에서 街頭에서 茶房에서 學校에서 集會에서 어디서나 조선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러한 傾向을 늘 感觸하는바지마는, 조선말은 그들의 주고 받는 말 가운데서 점점 적어간다. 심한 경우에는 全然히 조선말을 모른다는것으로 榮光을 삼으려한다. 이러한 傾向의 發展은 朝鮮語에 가장 큰 危機라고 말할수 있으니, 한 民族의 言語의 分散은 그 民族의 分散을 意味함이요, 한 民族의 言語의 衰退는 곧 民族의 衰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 民族의 言語를 廢滅의 구렁텅이에서 救出할수 있는것은 그 民族의 文學과 文化에서만 可能하다. 偉大한 文學은 그 民族의 言語를 美麗하게 만듦뿐만이 아니라, 等閒히 여기던 자기의 母語에 대하여 興味를 갖게 하며, 사랑하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文學은 內容에 있어서만 아니라, 言語에 있어서도 큰 責任을 지게 되는 것이다. 가령 朝鮮文學을 朝鮮民族이 愛讀하며 支持하지 않으면 朝鮮

文學의 盛旺은 물론 期待되지 않을 것이나, 그러한 까닭에 朝鮮文學은 그들의 興味를 일으킬만한 言語에 努力하여야 할 것이니, 正確한 名詞, 美麗한 形容詞, 細密한 動詞…… 등의 豊富한 語彙의 綜合이 없이는 文學의 表現을 하고자 하는 것을 實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粗雜하고 硬生하고 難澁하여 한피지도 읽지 못할 것이다. 만일 조선의 文士들이 朝鮮語에 等閒할 것이면, 우리들의 生活과 理想은 어디 서 찾아나며, 우리의 言語는 어느 곳에 남아 있을 것인가.

일수가 루르게네푸는 千八百八十年 六月에 詩一篇을 썼으니, 그것은 토시아말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기의 祖國語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 詩에서 찾을 수 있다.

『祖國의 運命에 대하여 疑心과 孤寂과 冥想 가운데 너만이(露語) 나를 머무르게 하며 나의 依持며 힘이며 眞理다. 자유스런 토시아말이여! 나라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니, 네가 아니었다면 어찌 失望에 빠지지 않았으랴? 그렇지만 이러한 言語가 偉大한 民族의 선물이 아니라 할 사람이 그 누구겠느냐?』

이것은 루르게네푸의 個人的 詩篇뿐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의 言語를 살리며 豊富하게 하며 普及시킬 수 있는 그들의 文學의 빛나는 歷史를 또한 우리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 詩를 읽을 때마다 늘 感銘이 깊어진다.

가령 偉大한 코스모포리탄이 있어서 世界는 同一한 集團의 기를 主張하며 同一한 言語使用을 力說하며 文學과 藝術의 無國境性을 禮讚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數萬年後의 아름다운 理想의 研究로 돌려보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閒心을 일으키기도 하자!

이러므로 우리의 받은 우리의 文學에서 發展되어야 하며, 成長시키어야 하며, 數萬年을 保留하게 하여야 한다. 朝鮮語의 語彙도 우리들의 文學에서 찾게 되며, 그 綴字法도 그 文章도 文法도 우리들의 文學에서 찾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들의 偉大한 文學이 있어야 할 것은 물론이며, 따라서 現今 우리들은 이 朝鮮語에 관한 用意가 다시금 커져야 하겠다.

英吉利文學史나 露西亞文學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朝鮮文學도 朝鮮語에 대한 努力이 누구보다도 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에게 쉬운 것은 아니다. 가장 難事일 것이다. 現今에 조선의 文士들은 朝鮮語의 奧妙한 語彙를 찾는다는 것은 그만 두고라도, 平易한 情意를 表現하는데도 그 綴字의 形式 各樣各色임에 우리는 스스로 疑惑과 躊躇를 말지 않게 한다. 우리가 一定한 글자를 가지며 美麗한 語彙를 探索하며 正確한 文法을 構成하기까지는 長遠한 일이다. 그러나 적은 것에서부터 努力하지 않고 實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러한 때에 朝鮮語學會에 대한 나의 關心은 커졌다. 辭典을 編纂한다든지 혹은 綴字法 統一案이 發表되느냐 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그에 대한 期待가 많았다. 이것은 나뿐 아니라 조선사람 全體의 期待였다. 그러다가 昨年十月頃에 비로소 學會의 첫걸음으로 한 글 綴字法 統一案이 各新聞에 一齊히 發表되었다. 이 綴字法 統一案은 一般으로도 急務이겠으나, 특히 우리들에게는 더욱이 急務라고 하겠다. 자고 논만 따면 우리는 이 조선말을 종이 위에다가 쓰는 것이 일이라, 늘

우리의 綴字法의 不統一이 마음에 꺼리는 까닭이었다.

이러한 意味에서 이 朝鮮語學會의 한글 綴字法 統一案을 반가이 생각하였으며, 또한 精讀하였다. 물론 이것은 多年間 朝鮮語의 專門的 學者들의 研究의 一端이란 점에서 내 自身도 그 후부터는 이 綴字法에 依하여 글을 쓰기를 努力하는중이다.

그러나 이 綴字法은 朝鮮語學者들 가운데도 다소 細少한 差異가 있음은 草創時代의 어찌할 수 없는 事情이라고 하고, 그러면 내 自身은 이에 대한 疑點이 없느냐고 하면, 語學者가 아닌 나로서는 疑點보다도 좀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그들에게 물어볼 것이 많을뿐이었다.

朝鮮語學會는 朝鮮語 研究의 權威者가 網羅된 機關으로서 그 根本을 疑心할 何等의 原因이 없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근자에 이에 문득 銳利한 對峙가 생기어서 적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混亂에 빠지게 한다. 나는 이 점에서 이 글을 쓸 動機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가령 서로 意見이 對立되거나, 그 學問上 差異點이 있다고 해서, 결코 非難한다든지 혹은 朝鮮 文化의 將來를 悲觀할 必要는 없다. 어느 때는 오히려 各自의 相異한 研究가 相互의 參考가 되어서 그 좋은 結果를 갖게 하는 수가 많다. 가령 言語의 整頓된 歐洲 諸國의 文法에 있어서도 다소 差異한 學派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學的 處地에서 相互의 相異가 純粹한 學的 研究의 結果라면, 어느 때고 그 差異點에 根據를 갖게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서로의 功名만을 위한 非學問的일 때에는 이것은 자연 崩壞의 運命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때

든지 되차에 學問的 研究的 態度를 忘却해서는 아니된다. 黨派를 作成하며 聲明書를 發表하는 것 등은 짐짓 學徒들의 行動이 아니다. 一時的 勝利보다도 永久한 勝利를, 一時的 妥當보다도 久遠의 眞理로서의 研究가 必要하다. 一事業이 一日이나 一年에 終了될 것이 아니며, 적어도 몇 百年 몇 千年의 研究 事業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나도 역시 朝鮮語學會의 한글 統一案에 관하여 質問할 것이 없지도 않으나, 이것은 朝鮮語學會의 今後의 努力이 우리들의 疑點을 氷解시킬 줄로 안다. 나는 그들을 朝鮮語에 관한 學者的 權威를 信任하고, 그 專門家의 人格을 尊重하여 기므로, 그들의 事業을 獎勵하며, 鞭撻하여 朝鮮語 研究의 正統的 權威를 세우도록 하고 싶다. 故 周時經 先生 以後에 그의 事業을 繼承한 이 朝鮮語學會는 실로 큰 責任을 지고 있는 까닭이다. 다만 問題는 하나가 남아 있다. 그들은 研究家이나 우리들은 實用家들이다. 疑惑은 研究家에게보다도 實用家에게 많은 법이다. 이 疑惑은 研究家의 重要な 研究 素材가 될 것이니, 研究家와 實用家 사이에 關係는 언케든지 密接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는 隔離된 憾이 없지 않다. 이러한 細密한 것은 추후에 發表하고자 하고, 이곳에서는 차항히 論及하고자 하지 아니한다.

다만 朝鮮文學의 建設者들은 朝鮮語에 특별한 關心이 必要하며, 또한 朝鮮語의 研究機關인 朝鮮語學會는 朝鮮文學의 趨移에 關心이 또한 必要한 줄로 생각하는바 이다. (新朝鮮 十月號에서 轉載)

朝鮮語讀本 卷一

指導例 (10)

京城師範學校 沈宜麟

一、教材 四十八

「언니가 왔고나, 와서잇고나. 커기 걸린 커 모자
여기 이 구두. 방안 에서 나오는 커 목소리 는,
사촌언니 목소리 분명하고나. 오날 짬 은 오리라
기다리시든, 어머니 도 깃브신지, 커 웃음소리」

二、教材觀 文學的 教材인데, 오기를 苦待하든 四

寸兄의 목소리를 밖에서 듯고, 반가워하는 깃브의
場面을 表現한 童謡이다. 읽고 읊고 맛보아서 親
戚愛의 아름다운 마음을 助長하고, 兼하여 文學에
對한 趣味를 養成할것이다.

오날 짬은 사촌언니가 오리라 고 기다리고 잇섯다.
그래서 學校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사
촌언니가 왔스려니 하얏다. 집을 들어가 살펴보았
다. 아나나 다들가, 뗏돌에 올라서 신발을 벗으랴
닛가, 눈익은 걸린 모자 노인 구두, 방안에서 나
오는 목소리 모다가 틀림업시 사촌언니가 온것이
다. 엇지 반갑고 깃브지 안켓느냐. 그때의 心境은

커걸로 本文과 같은 노래가 나올것이다. 이 준간의
나오는 正直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親戚愛의 童心
을 잘 맛보게 하여야 할것이다.

1、文……집에 들어올 때, 읊줄 알고, 기다리든 사
촌언니가 온것을 알고, 반가웁고 깃브서 하는 소
리를 노래로 지은 글이다.

2、插畫……학교에 갔다와서 마루에 걸터앉아 구두
를 벗는중이다. 눈익은 구두가 뗏돌에 노뎛고, 단
장이 꼬치고, 모자와 외투가 걸렛슴으로 자세하바
라보며 오리라든 사촌언니가 왔나하고 방속에서 나
오는 소리를 자세히 듯는 모양이다.

3、新語……언니, 왔고나, 걸린, 목소리, 사촌, 분명,
짬, 깃브신지, 웃음소리

4、新字……언, 걸, 목, 촌, 명, 짬, 깃, 브,
5、補充語……외투, 단장, 티마루, 뗏돌, 걸터앉엇다.

三、指導方法 大要 (畧 三時間 取扱)

1、自由讀、試讀、範讀、指名讀、齊讀等으로 독바로 읽
은 때까지 읽는 練習。

2、新出字의 取扱。

3、大意의 發表 練習。……(무엇을 쓴 글인지 自
由로 發表시켜본다)

4、內容의 問答과 語句의 插畫。……(무엇을 가지고
지은 글이나? 누가 지은 것이나? (十二頁에 續))

주요인 조선말본

길잡이

延專教授 崔鉉培

씨갈 (品詞論) (二)

둘재 가름 이름씨 (名詞)

一、이름씨를 두가지로 갈라서, 한갈래의 일과 본(物)에 두루쓰이는것을 **두루이름씨**(普通名詞)라 하고, 특히 한낱의 일과 본에만 국한되어 쓰이는것을 **홀로이름씨**(固有名詞)라 한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두루이름씨로서 한낱의 본밖에 다시 더 넓게 두루쓰일것이 없는것도 있으며, 홀로이름씨로서 한낱의 일본(事物)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몇개의 일본에 두루쓰이는 일이 없지 아니하다. 이를테면, 「해」 「달」은 두루이름씨로되, 한낱의 해나 달밖에 다시 더 넓게 쓰일때가 없으며, 「金尙容」 「李鍾國」 「쇠돌이」 같은것들은 홀로 이름씨로되, 몇사람에게 두루쓰이는수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그 「두루」와 「홀로」를 가름에는 실제의 일본(事物)의 셈(數)으로 결정할것이

아니나, 그 말뼌의 바탕으로 보아서 두루쓰일만한것은 씨령 그 적용되는 일본은 하나뿐일지라도 역시 두루이름씨라 일컫고, 두루쓰일만한 바탕이 없고, 다만 어떠한 일본에만 쓰일케 바탕(本質)을 가지고 있는 이름씨는 씨령 그러한 말이 몇개의 경우에 두루쓰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홀로이름씨라 일컫나니라. 그러므로 두루이름씨와 홀로이름씨와의 가름(區別)은 다만 단순한 객관(客觀)의 문체가 아니라, 주관(主觀)을 가미한 객관의 문체라 할만하니라.

二、불완전한 이름씨는 케홀로는 다루서는 힘이 없고, 항상 어떤씨(冠形詞)나 어떤씨 같이 된 말 앞에 붙어서 쓰인다. 이를테면

어느 것이 자네 책인가. (어떤씨 아래).

보는 것은 다 잡는다. (어떤씨 같이 된 움죽씨 앞에)

좋은 것을 가시오. (어떤씨 같이 된 어떻씨)

그것이 붓일 것 같잖다. (어떤씨 같이 된 잡음씨)

커서림 것이 좋겠소. (어떤씨 같이 쓰인 이름씨 앞에) 여기서의 「것」과 같은것이다.

불완전한 이름씨는 그 쓰임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 말본에서의 중요함은 매우 크니라.

의 함

이름씨의 역에는 굵은 줄을 굵고, 홀로이름씨는 「홀」 불완전한 이름씨는 「불」이라 포함.

(7) 오늘 은 베 가 온다. 지난 겨울 에는 눈도 그렇게 많이 오더니.

(L) 三角山 ^홀의 힌 구름 이 한숨 에 달음질하

여 南山 ^홀으로 날아 오며, 南山 ^홀에 잠긴 안

개 가 또 다시 풀려 날차게도 漢江 ^홀 언덕 으

로 달음질치나간다. 慶州 ^홀의 佛國寺 에는 有名한 多寶塔 과 釋 ^홀

迦塔 이 新羅時節의 文化를 자랑하고 있다.

(2) 에디손 은 낮 이면 汽車 안 에서 新聞 을

팔고, 밤 이면 집 에 돌아와서 어머니 에게

글을 배웠다. 작은 것 ^볼을 아낄 줄 ^볼을 아는 ^볼이라야 큰 것 ^볼

을 이루어 내는 법이오. 스스로 어리석은 ^볼 줄 ^볼을 아는 ^볼 어리석은 ^볼 이는

슬기로운 ^볼이로 더불어 相距가 멀지 아니하니라.

셋째 가름 대 이름씨 (代名詞)

대 이름씨에 관하여는 비교적 자세한 풀이를 본책에 해 놓았은즉, 여기에서 특별히 더 말할 것이 없

겠다. 그러나 여기에 대 이름씨를 이름씨 속에 넣어 버리지 아니하고, 따루세워서 한 씨갈래로 잡은 까닭을 간단히 말하면 이러하다. 곧 대 이름씨에는 가 리키는 뜻이 있으며, 또 그 가리킴에는 높임의 등 분이 있어서, 그것이 월(文)의 임자말(主語)이 될 적 에는 그 알에 오는 풀이씨의 높임의 등분이 그것 과 서로 맞아야 하는 문법적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법적 관계를 설명함에는 대 이름씨를 한 따 루선 씨갈래(品詞)로 잡음이 옳으니라. 따라 대 이름 씨의 높임의 등분은 잘 기억시키는 것이 필요하니라. 순연한 조선말에서는 둘째 가리킴의 아주 높임에는 대 이름씨를 잘 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 이름씨조차 일반으로 똑똑하지 못하다. 그러나 근래 에는 이에 당한 대 이름씨의 필요가 진절하게 되어 서 「당신」이란 말을 쓰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에 「당 신」이란 말이 좀 서투른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아니 하며, 또 가장 높이는 자리에는 쓰기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아니하지마는, 이 앞으로는 이 말을 내어 놓고는 오늘의 생각나라내기(思想發表)의 요구를 채 울수가 없나니라. 「이것」 「그것」 「저것」과 「아분」, 「이이」, 「이애」 따 위는 두 씨로 풀수도 있겠지마는, 한날의 대 이름씨 로 잡음이, 여러가지로 보아 편리하며 유익하니라.

의 힘

一、대이를씨는 뽕줄을 굿고, 다시 사람 대이를씨는

는「사」첫재가리키는 「첫」, 둘째 가리키는 「둘」,

셋재가리키는 「셋」으로 하고, 또 대이를씨는

「몬」, 가까웁은 「가」, 멀어짐은 「떨」, 멀음은 「멀」

안잡힘은 「안」으로 함.

(ㄱ) 이몬,가 몬,가 몬,떨 거몬,떨 몬,떨

이것은 여기에, 그것은 거기에, 이것은

(ㄴ) 너는 어대로 가니? 커는 우리 엄마 찾

아 커리로 갑니다.

(ㄷ) 당신은 누구를 찾아왔소? 나는 나의

친구를 찾아왔소.

(ㄹ) 거몬,떨 거기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야

네 옷이 아닌가?

(ㅇ) 커이,가 요천에 커에게 책,을 빌려 주

었습니다.

(ㅁ) 어른,개서 한번 거기에 가아 보시면 어떻

겠습니까?

(九頁에서 續) 이아하는 어디서 오는 길이야. 누가

온줄 아니? 엿재서 아니? 밖에서 무엇을 보고

아니? 그때 마음이 엿더켓니?)

5、插畫의 對하야 自由 發表.

6、插畫의 問答과 補充語 取扱.

7、讀法 練習。……(特히 讀調의 注意)

8、文意의 問答。……(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 기다리든 사촌언니 가온것을 알고, 반가웁고

깃버서 하는 소리를 외는 노래다)

9、感想 發表。……(이 노래를 엿더케 생각하니? 이

아하는 사촌언니를 엿더케 여기니?)

10、味讀 練習。……(깊은 뜻을 생각하며 읽어보다)

11、語句의 適用 練習。……(고나, 분명, 짚, 깃브다)

12、書取 練習。……(視寫, 暗寫)

13、補充文의 讀法 練習.

「오섯고나 오섯고나, 우리 언니 오섯고나.

서울 갖든 우리 언니 커 방안에 오섯고나.

여기 노인 이 구두 커기 걸린 커 외투

들립업시 친에 보든 우리 언니 물건이다.

방속에서 나오는 커 공손한 목소리는,

부모님께 말씀하는 우리 언니 목소리다.

어서어서 들어가서 반가웁게 철하겟다.」

普通學校 朝鮮語讀本 語彙調查

(自卷一至卷四)

教科書와 統一案과의 對照

(4) 李 浩 盛

부

(통일안 난에는 교과서와 다른 것만 적음)

교과서

통일안

나(吾)

나하고

나는

나와

나도

나를

나만이나

나에게로

나에게

나로서도

나의로구나

나다(飛)

나오

나는것이

나라(産)

낫습니다

낫다

낫습니다

교과서

난것을

나다(出)

났소

나오

낫습니다

답니다

나서

나고

나섯습니다

나서며

나가다(出)

나가드니

가가는

가가서

가오

나갓습니다

나가는데올시다

나그네(旅客)

나그네들은

나그네가

나그네의

나그네는

나그네를

나날이(日日)

나누이다(分)

나누어주겠다

통일안

낫은것을

났소

나오

낫습니다

나섯습니다

나섯습니다

나섯습니다

나섯습니다

나섯습니다

나섯습니다

나가더니

나갓습니다

나가는데올시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나갓습니다

교과서

나뉘다(分)

나뉘었고

나라(國)

나라에서

나라가

나래(翼)

나래로

나룻배(舟)

나룻배를

나리다(降)

나린

나려다보겠지

나린장마에

나려다보았습니

다

나려와서

나려왔습니다

나려노코

나막신(木鞋)

나막신을

나무(木)

나무에게

나무도

나무에

나무가

나무나

통일안

나뉘었고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라는

나무를

나무가지에

나무가지에 서는

나물(菜)

나물을

나비(蝶)

나앗다(優)

나앗습니다

나오다(出來)

나오는

나온것이오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면

나오드니

나오지 않으니까

나중(後)

나중에는

나직히(低)

나라나다(顯)

나라나서

나라날것이다

나흘(四日)

나흘동안이나

내(我)

내가

내(川)

벚가에는

벚가에

벚물이

내다(出)

내노으시면서

내여노코

내면

넙니다

내니

내게

내는구나

내면서

내며

내엿것습니까

내지(內地)

난로(暖爐)

난로와

날(日)

날마다

날이라도

날이다

날이

날개(翼)

날개치며

날르다(運)

날르고

날르다(飛)

날라갑니다

날라서

날라다니고

날리다(飛)

날립니다

날아가다

날아가네

남(他人)

남을

남북그려

남의

남(南)

남쪽이코

남문

남다(餘)

남겠니

남습니다

남앗겠니

남앗습니다

남사오나

남아있다

남어지(殘)

남어지는

남기다(餘)

남겨준다

남겨노은

냄새(臭)

냄새를

낫(鎌)

낫자루라고

남부끄러

남졌니

남앗겠니

남앗습니다

남아있다

남겨놓은

남부끄러

놀고
 놀다가자
 놀시다
 놀기만
 놀면
 노든
 놀라다
 놀랐습니다
 놀라운
 놀리다(弄)
 놀리니
 놀이(遊)
 놀이한다
 놀이를
 놀(漢)
 농가(農家)
 농가에서는
 농부(農夫)
 농부가
 농사(農事)
 높다
 높인
 높이(副詞)
 높이
 높인의
 높이(高)
 높이기
 누구(誰)

노던

놀랐습니다

높은과

누가
 누구든지
 구누에게
 누구에게든지
 구구나
 누구더러
 구구나
 누구로
 누님(姉)
 누님은
 누님과
 누님께서는
 누의(蠶)
 누에치서
 누이동생(妹)
 누이동생과
 누이동생은
 눈(雪)
 눈이
 눈이나
 눈사람을
 눈(眼)
 눈으로
 눈으로
 눈으로
 눈도
 눈과
 눈은
 눈물(淚)

누에치서

눈물음
 눈침(眉)
 눈침과
 눕다(臥)
 누어잇소
 늙다(老)
 늙어서는
 늙은이
 늙으리라
 늦기다(滯泣)
 늦기며
 늦다(遲)
 늦게네
 늦게
 느끼다
 느끼며
 늦겠네
 느꼈네
 누워잇소
 눈
 ↓
 社告
 한글 마춤법 통일안
 解說號는 再版까지 한
 것이 이미 賣盡되어, 여
 러분의 請求에 應하지
 못하옵은 심히 미안하
 나이다。

한글 연구 圖書 解題 (2) 方鍾鉉

三韻通考 一冊 印本

이 책은 序文도 없고 跋文도 달리지 않았을뿐더러, 또 달리도 그 作者와 그 著作된 年代와는 도무지 알아볼 길이 나가지 않는다. 후 支那人의 所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增補東國文獻備考 卷二百 四十三에 『我國韻書之最先出 卽三韻通考……』이라고 記錄된 것을 보면 朝鮮에서 韻書로는 第一 오래된 것임을 指稱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芝峰類說에 「三韻通考 我人從倭得之 至於我國之李相國集國中已失 而從倭來亡……」이라고 한 것을 보면, 當時에 벌써 이 책은 朝鮮內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리만큼 거 이 없어졌던 것을 말함임을 알 수 있는 同時에, 李相國集 云云이라는 文句의 表示를 보아서도, 역시 이 通考가 朝鮮 著인 것으로 認定하는 內意를 包含한 것이 事實이라 하겠다. 더욱이 近者에 흔히 볼 수 있는 三韻補遺라든가, 增補三韻通考라든가, 華東正音通譯이라든가, 三韻聲彙들과 같은 책이 全部 이 三韻通考에 依據하여 增減한 것을 明示하였고, 또 이 名稱이 『通考』라고 한대서 보아서 正韻通考나 四聲通攷라고 한 것과 서로

名稱 制定上 어떤 影響 혹은 무슨 關聯이나 있게 생 각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點에서 그 著作된 年代를 世宗朝까지 推測하는 것도 一理 있는 줄로 안다. 左右間 著作의 氏名과 같이 未詳한 것으로서 나는 우에 말한 바와 같은 推測을 믿고 있다. 다음에 增補三韻通考와 比較하면 아래와 같은 差異를 찾을 수 있다.

三韻通考는 그 冊張 모에 韻考라고만 써 있고, 增補三韻通考에는 增補라고 記하였으니, 前者가 八十 三張으로 終了되었는데 對하여, 이 책은 九十 八張으로 끝막았다. 또 增補한 字數는 그 第一行에 新增 凡一千八百 二十 七字라고 記하였고, 一이 增補라는 二字가 記入되어 있으므로, 三韻通考는 결국 增補한 책에서도 능히 그 原本의 舊態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이케 그 책된 體裁를 보면 한 「페이지」를 三段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形式으로 써 表示하였다.

三韻通考

東 第一 上平 董 第一 上聲 送 第一 去聲

東方(凍) 暴 蠅 蝶 | 董 正 蠅 蝶 | 送 遣 鳳 神

다만 三韻通考에는 「隊 第十一 去聲」이 있었으므로, 다음은 「眞 第十一 上平聲」 軫 第十一 上聲 震 第十二 去聲으로 되어서, 增補가 「眞 十二、輪 十二、震 十二 去聲」으로 한 것과는 그 番號가 다를 뿐이고, 또 蒸 第

廿五 下平聲 가 있으므로, 다음은 左 第二十六 下平聲 (增補 左 廿七) 有 第二十五 (增補 左 廿七) 宿 第 廿六 去 (增補 宿 廿七 去聲) 으로 되었을뿐이다.

訓民正音의 韻書와 關係있는것은 歴然한 事實로써, 世宗大王께서 訓民正音을 公布하시기 前에 이미 韻書를 譯한 記事가 있는것으로 보아, 또는 遼東에 十 三度 往返한것으로 보아, 이 三韻通考가 朝鮮의 最初 韻書라

고 하면 더욱이 그 存在의 價値는 높아갈뿐이다. 다 만 遺憾인것은 이 책도 매우 드물게 볼수 있는 책으로서, 내가 보고 들은 現存책은 權憲奎氏 所藏本을 昨年 朝鮮語學會 主催 展覽會에서 잠간 보았고, 또 梁柱東氏가 가지고 있다는 말을 直接 들었으니, 합하여 도 千부가 三四책에 不過하지 않는가 한다.

음운학과 대담

【음운】 한글 사월호(제2권) 팔페이지 및 구폐지의 하단에 있는 아래와 같은 말의 뜻을 가르쳐주시요.

- 1, 청구명언
- 2, 우조
- 3, 첫가운한요
- 4, 진화엽
- 5, 계면
- 6, 복전

(長津 倉坪市 李豪洙)

【대담】 1, 청구명언의 한문 글자로 「靑丘永言」인데,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은 「歌曲源流」와 한가지 노래 책으로 거의 다 시조(時調)입니다. 커자는 누구인지 알수 없으나, 커작 연대는 좀 오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세상에 흔히 있는것이 아니요, 몇해전에 면회전문학교에서 등사판으

로 몇부만 박은것이 세상에 행할뿐입니다. 6, 우조(羽調) 3, 첫가운한요(初中大葉) 4, 진화엽(音化葉) 5, 계면조(界面調) 6, 복전(北殿)은 다 곡조 이름이니, 우조는 소리가 웅장(勇壯)하고, 계면조는 소리가 애련(哀戀)하며, 첫가운한요와 진화엽과 복전은 우조와 계면조에 붙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조와 계면조의 해설을 그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羽調 舜, 於南薰殿上 以五絃琴, 彈解吾民之曲, 聲律, 正大和平, 清壯踈暢, 玉斗撞破, 碎屑鏘鳴

界面調

昭君, 辭漢往胡時, 白雪紛紛, 馬上琵琶, 聲律, 嗚咽悽愴, 哀怨激烈, 忠魂沉江, 餘恨滿

楚

이것으로써 우조와 계면조의 다름을 잘 알것이며, 이 가운데 初中大葉, 二中大葉, 三中大葉, 初後庭花, 二後庭花, 初數大葉, 二數大葉, 三數大葉, 騷聳, 編騷聳, 栗糖數葉, 蔓橫, 羽樂, 界樂, 言樂, 編樂, 編數大葉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다 말할수 없고, 이 다음에 전문 대가로써 시조 곡조 이름에 대한 설명이 이 잡지에 한번 실리겠습니다. (이윤재)

【음운】 보통학교 조선어독본 권오

제일과에 「노고지리 우지진다」는 무슨 뜻입니까. (長津 倉坪市 李豪洙) 【대담】 「노고지리」는 곧 종달새인데, 시골 방언에 있으며, 「우지진다」는 울어 지저진다란 뜻입니다. (이윤재)

標準語查定委員會

—會議經過畧記—

○준비 조선 학회에서 끊임이 없
는 노력과 활동으로 우리말 우리글
의 정리를 착착 진행한바, 재작년
시월에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완
성하였고, 또 계속하여 표준어를 정
하려고 이미 오래동안 준비하여왔었
다. 표준어에 관계된 어휘를 수집한
것이 대략 사천여에 이르렀다.

○위원 권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위원과 철자사전 편찬 위원이
표준어 사정위원이 되게 하며, 그 밖
에 위원을 더 증가하는데 교육계, 종교
계, 언론계, 남녀별, 도별등으로 포할
되었다. 이미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표준말은 대체로 현시 중
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
는 규정의 의지할 것이요, 서울말 이외
에도 각지방의 말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표준어 사정위원은 경성 출생

한이 이외에 각도에 출생한이도 참
가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 사
람을 권수의 반으로, 각도별로 매도
에 두사람 이상을 참가하게 하여, 권
부 사십인으로 조직하니, 곧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 | | | |
|---------|--------|--------|
| 權蕙奎(京) | 金克培(慶) | 金炳濟(慶) |
| 金昶濟(忠) | 金九經(京) | 金炯基(全) |
| 文世榮(京) | 朴顯植(平) | 方信榮(京) |
| 方鍾鉉(平) | 白樂濟(平) | 申九局(黃) |
| 申明均(京) | 徐恒錫(咸) | 安在鴻(京) |
| 尹福榮(京) | 李 鉉(京) | 李康來(忠) |
| 李克魯(慶) | 李基濶(咸) | 李萬珪(江) |
| 李命七(京) | 李乘岐(全) | 李世楨(京) |
| 李淑鍾(京) | 李沄鎔(京) | 李九宰(慶) |
| 李 鐸(京) | 李泰俊(江) | 李浩盛(京) |
| 李熙昇(京) | 張志暎(京) | 全弼淳(京) |
| 鄭烈模(忠) | 鄭寅燮(慶) | 車相瓚(江) |
| 崔鉉培(慶) | 韓 澄(京) | 成大勳(黃) |
| 洪에스티(京) | | |

○출발 표준어 사정의 회의 장
소는 충청남도 아산군(牙山郡) 온양
온천(溫陽溫泉)으로 정하고, 예정과
같이 지난 일월 이일 오전 십시에 우
리 위원 일행이 경성역에 모여서, 준
비의 부족으로 열시 삼십분 기차로
떠나지 못하고, 철도호텔 식당에서 컵
심을 먹고, 오후 영시 삼십분 기차
로 떠났다. 등 배시 삼십분에 온양
온천역에 도착하니, 당시 유지 케씨와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새
신문사 지국원 케씨의 마중이 있었다.
위원 일행은 온양관, 삼청여관, 케
일여관에 나누어 숙소를 정하였다.

○이의 일월 이일 오후 오시에
영천의원(靈泉醫院)에서 개최하다. 임
시의장이 희승(李熙昇)씨가 개최를 천
언하고 의사를 진행하는데, 서항석(徐
恒錫) 이래준(李泰俊) 함대훈(咸大
勳) 정인섭(鄭寅燮) 방신영(方信榮)
다섯분을 권령위원으로 뽑아서 아래
와같이 부서를 정하다.

司會 金昶濟, 安在鴻, 洪에스티, 李熙昇

草案說明委員 李九宰、金九經、崔鉉培、

李克魯

記錄委員 方鍾鉉、金炳濟、金炯基、李鉀

표준어의 채택(採擇)에 대하여는 위원을
정성위원(정기 출생)과 지방위원(각도 출생)으로 나누어서, 토의는
공동으로 하되, 다만 표결권은 정성위원에게만 있게 하고, 그 결정한 것에 대하여 지방위원으로서 만일 이의가 있을 때는 그것을 재론하여 권수가 결로써 채용하기로 결의하다. 회의시간은 오전 구시부터 십시까지 오후 일시부터 오시까지, 동철시부터 십시까지, 매일 삼차 주야 겸행으로 하기로 결의하다. 초안설명위원이윤재씨로서 초안을 편성한 취의 및 주의할 몇가지의 설명이 있는 후에, 이어서 토의를 진행하였다. 둘째날부터는 회의 장소를 감리교 온천예배당으로 옮기다.

○연기 사천이나 넘는 어휘를 날
날이 처리하게 되며, 아무리 급속도로
한다 하여도 예정한 날자로는 부

족하므로 하루를
더 연기하여 육
일 오후 오시까지
하기로 하다.

○연중사참배

일월 육일 오전
십시에 위원 일
동은 배암밭(白巖
里)에 있는 이충
무공의 옛집과 현
충사(顯忠祠)를 참
배하고 기념사진
을 박았으며, 이
종옥(李種玉)씨에
게 많은 대접을
받았다.

○기념회

이
번 회의에 비용
을 전담하여주신
정세권(鄭世權)씨
가 비용의 부족
을 염려하여 바
쁘중에도 일부터



……서예 앞 閣碑念紀 王大祖世 고치마 을定查 語準標……

찾아오기까지 하여, 오일 오후 오시에
위원 권체를 신경관(神井館) 오원으로
로 초대하고, 동육시에는 동취항(同
聚恒)에서 만찬회를 열어 만족한 위
로를 주었다.

또 당시 유지 케시로서 오일 오후
십시에 장춘관(長春館)에서 표준어사
정위원의 위도회를 열고, 가진 여흥
으로 주빈이 한가지 즐거움을 다하
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등 심이시에
산회하다.

○신세진것 이번 회의에 여러분
에게 신세진것이 많은데, 대강 아래
에 적어서 감사의 뜻을 표한다.

- 鄭世權氏 會費를 全擔하심
楊在植氏 會議時 여러가지 幹旋하심
洪亨俊氏(牧師) 會議場所 提供하심
李成珪氏(東亞日報支局長)
洪承復氏(朝鮮日報支局長)
柳乘近氏(朝鮮中央日報支局長)
姜義永氏(永昌書館主) 菓子一封
東亞日報社 祝電
朝鮮中央日報社 祝電
申瑛澈氏(春川) 祝狀

○출석위원 이번 회의에 몇분은
부득이한 사고로 참석하지 못한것
이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며, 참석한
회원은 모두 삼십 이인인데, 그 이
름은 아래와 같다. (가나다순)

- 金炳濟 金昶濟 金允經 金炯基 文世榮
朴顯植 方信榮 方鍾鉉 徐恒錫 申允局
安在鴻 尹福榮 李 鉀 李康來 李克魯
李基潤 李萬珪 李命七 李世植 李淑鍾
李沄鎔 李允宰 李 鐸 李泰俊 李浩盛
李熙昇 全弼淳 鄭寅燮 崔鉉培 韓 澄
咸大勳 洪에스터

○폐회 표준어의 토의를 닷새등
안에 순조로 진행하여 대체의 완결
을 얻고, 이것을 다시 수정하기로 하
다. 권형위원으로 안재홍 이희승 최
현배 이극로 비분을 내어, 수정위원
을 뽑으니, 다음과 같다.

- 金昶濟 金允經 金炯基 方鍾鉉 申允局
安在鴻 李克魯 李基潤 李萬珪 李淑鍾
李允宰 李浩盛 李熙昇 崔鉉培 韓 澄
洪에스터
이번 회의는 이로써 끝나기로 하고,
다음 세가지를 수정위원에게 맡기어

처리하게 하다.

1. 이번 사정한 부분에서 누락된 어
휘가 있으면 그것을 보충할 것
2. 이번 사정한 결과에 후시나 보
순되는 점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
할 것.
3. 이번에 사정한 표준어에 체계
(體系)를 세울 것.

또 이번에 시간미급으로 약간 남은
부분까지 다 수정위원에게 맡기기로
하다. 그리고 수정위원의 권한은 위
원 삼분지이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할
수 있으며, 또 참석한 위원 삼분지이
의 가표가 아니면 결정하지 못하는 것
이다. 이렇게 하여 수정이 다 끝난
뒤에는 곧 케이독회(第二讀會)를 소
집하기로 작정하고 일동은 일어서서
「만세」삼창으로 칭공을 축하하고, 동오
시에 케이독회를 마치고, 위원은 각기
여관으로 돌아가 행리를 수습하여
오후 칠시 이십이분 기차로 온양을
떠나, 밤 열시 오십분에 경성에 나
리다.

標準語 查定會에 對한

各新聞의 社說

朝鮮中央日報

第二千四百五十一號

『한글』의 查定委員會

一般의 支持가 必要

一

지난 二日부터 五日까지 四日間 忠南 溫陽溫泉에서 『朝鮮語 標準語 查定委員會』를 開催하고, 斯界의 權威 及 教育, 宗教, 言論, 各界의 專門的 研究家 四十餘氏가 網羅되어, 昨年 十月에 發表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基礎로 다시금 研究를 거듭하여 標準語 完成에 努力中이라 한다. 아직 그 會議가 進行中이므로 어떠한 成果를 產出할는지 推測을 不許하나, 이 委員會에서 決定된 草案을 再 審査하여 言語統一의 基礎는 勿論, 綴字 辭典까지도 編纂하여 朝鮮語에 對한 金字塔를 建設하리라 한다. 그 會議에 對한 期待가 큰 同時에 研究家 諸氏의 努力에 衷心으로 感謝하는바이다.

二

從來 『한글』의 不統一로 因하여 一般

이 不便을 感함은 勿論이어나와, 그 正確性이 없어서 甲은 甲式으로 乙은 乙式으로 各自가 自案의 主張을 固執하여 歸趨가 漠然하고, 도리어 何者가 옳은것인지 몰라 判斷에 困難하였다. 今般 討論의 結果가 곧 完成을 意味하는것은 아니나, 이것이 完成에의 한 階段이 되어 朝鮮 文化에 큰 功勳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完璧에 一沫의 支障이 없기를 願하여 마지 않는바이니, 言語가 統一되지 않고는 完全히 意思를 表示할수 없이 되고, 意思가 完全히 表示되지 못하면 文化가 發展될수가 없다. 따라서 文化의 完成을 어찌 期待할수 있으랴?

三

言語의 不統一로 因하여 文化 發展上에 큰 障礙가 됨은 贅言을 不要하거나, 가까운 中國을 두고 볼지라도 好例라 할것이다. 地域이 廣大하야 各地方의 方言이 各異하므로 同國人으로서 南北兩地方人이 會談하더면 通譯을 세우게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他國語인 英語等을 媒介物로 使用하여야 되는 現狀이니, 이 現狀이 어찌 相互間 感情을 完全히 表現할수 있으랴? 그러한 弊端을 느끼게 된

人士間에 是正運動이 擡頭하게 되었음은 勿論이니, 十餘年 前부터 言文 一致라는 標語下에 白話體와 韻文이라는 簡單한 口音文字로써 初等教育부터 實施하고 있다.

四

朝鮮은 中國과 같이 地域도 廣大하지 않고, 또 方言도 그다지 錯雜하지 않은터인즉, 標準語가 完成만 되면, 不遠한 將來에 『한글』이 統一되어 朝鮮 文化史上 劃時期的 發展을 보게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幾個人의 努力으로서만은 决코 全朝鮮의 普及되기 어렵은것인즉, 初等教育에서부터 一般 大衆的 讀物에까지 遺漏없이 活用하여야 될것이며, 一般 大衆도 因襲에 拘碍되지 말고 이 『한글』을 支持하고 運用하여서 完全한 意味로서의 標準語 期하여야 될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글 研究者 諸位의 最後까지의 努力을 바라 마지 않는바이다.

朝鮮日報

第四千八百八十八號

한글 標準語 統一問題

速히 決定이 必要

一

忠南 溫陽溫泉에서는 去 二日부터 한

글 標準語 査定委員會가 開催되었다。同會의 目的은 한글 語彙의 標準을 定하며 하는 것인바, 査定委員會를 다른 한글 委員會와 같이 한글 研究者에 限하지 않고, 各 地方別로 委員會를 選任한 것도 標準語를 定함에 各 地方語를 參酌하게 하리라 함에 있다 한다。 한글은 只今까지 여러 研究家들의 많은 研究를 지나 그 綴字法에 있어서 是 거의 確定的 統一案이 되었으나, 語彙에 있어서는 아직 그 定한 것이 없었으니, 이 機會에 그 標準語를 決定함은 한글 統一에 있어서 百尺竿頭에 更進一步가 될 것으로 믿는다。

二

元來 一 國語 又是 一 民族語로서 標準語를 定하는 것은 國民生活 乃至 民族生活에 있어서 不可缺한 問題니, 萬一 一國內 或은 一民族內에서 方言이 雜多 하야 統一이 되지 못한다면 서로 言語를 通할 수 없을 것은 勿論이요, 新聞、雜誌、其他 書籍等 刊行物에 있어서는 同一內容의 것을 數種 乃至 數十種으로 發行해 야 되겠으니, 그 不便은 오직 政治的、行政的、事務에 있어서뿐 아니라, 經濟其他 은갖 生活에 不便이 많고 文化創

造에도 一大 支障이 있을 것이다。白耳義가 佛、獨、프란델 三國語로써 國語가 되고, 瑞西가 獨、佛、伊 三國語로 使用되기 때문에 不便이 많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印度가 數十乃至 數百種의 言語가 있고, 中國이 官話外에 地方語가 많아 政治上、文化上 一大 支障이 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三

朝鮮은 地方이 比較的 狹少하고 오랜 統一國家로 나뉘어 때문에 比較的 言語의 懸殊가 적으나, 그러나 各 地方에 따라 言語의 差異가 있는 것은 不誣할 事實이다。 그러므로 一二 語學 研究者에 限하지 않고 各 地方語를 理解하고 熟親한 各 地方 人士들로 하여금 標準語 査定委員會를 열고, 그 標準語를 定하는 것은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 하겠다。

四

標準語를 定함에 있어서 京城만을 標準하자는 說과 各 地方의 共通된 것을 採用하자는 說이 있을 것은 事實이다。 두가지 다 一理 없는 것이 아니라, 吾人의 見解에 依하면, 單純히 京城語라고 標準語 될 수도 없고, 또 널리 共通的으로 使用된다고 그것을 標準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原則으로서 各道에서 널리 普遍的으로 使用되는 것을 標準할 것이나 이것 이 言語學的으로나 語義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비록 多數 地域에 使用되더라도 採用하지 말 것이니, 이것은 言語는 文化的 價値를 가진 所以이다。 한글 標準語 査定委員會의 開催에 際 하야 有終의 美를 收하기 바란다。

東亞日報

第五千五十五號

標準語 査定

慎重을 期하라

一

最近 一二年來로 朝鮮의 語文運動이 比較的 活潑한 步武로 나가는 것은 慶賀할 일이다。 昨年 十月에 이 方面에 多年 盡瘁 해오는 朝鮮語學會로부터 『한글 맞춤법 統一案』이 發表된 以後로 言論界、出版界、文藝界、宗教界等 各方面의 支持를 받아, 一年 未滿에 이미 相當한 成果를 보였고, 장차 더욱 統一에 步調가 迅速히 나갈 것이 豫測되는 이때에 同會에서는 그 第 二段의 計劃으로 來 一月 二日을 期하 야 溫陽 一隅의 閑靜한 處所에 同會會員 以外에도 教育界、宗教界、言論界等 各方

面의 人士를 網羅한 標準語 査定委員會를 開催하고, 그 成果를 거두어 곧 辭典編纂에 이르리라 한다. 우리는 同會의 此舉가 實로 時宜에 適함을 認하는 同時에 이 會合이 相當한 收穫을 남길줄을 미리부터 期待하는바이다.

二

標準語 査定이란 實로 至重한 일이어서, 決코 疎忽히할배 아니다. 過去의 모든 典籍을 參考하고 未來의 온갖 發展을 豫測하면서 全民族이 이에 關與하여야 할 일이다. 朝鮮語學會에서는 이번 會合의 準備로 充分한 資料蒐集과 廣範圍의 方言調査까지 完了하였다 하니, 이리 千慮가 있는지라 決코 一失도 있을바 아니지 않는, 標準語 査定이란것은 各語彙의 生死榮枯를 決定하는것이니 만치 該博한 智識과 銳敏한 感覺과 公正한 態度를 가지고 이에 臨하지 아니하면 好事가 도리어 百代의 孽을 지을 念慮가 있는것이다. 一語의 査定엔들 어찌 偏見과 我執을 固持할것이라. 同 會合에 參席하는 諸氏は 民族의 입과, 民族의 귀와, 民族의 魂을 代表하여 慎重 또 慎重히 할 것을 期하라.

(二九頁)

살을 보고 이것이 부러워

『을치 그리하난것이 도라. 그리하

면 나역 재산을 모아서 호광을 하

겠구

『로부 는 땅 많이 사라고 이

생각만 한다.

살년 지났다. 매년의 수획은 매

우 만하지고, 짐도 점점 줄거워

다. 그 때 그는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게든지 의뢰할 필요도 없고, 또

조공도 곤난 격글외담도 없겠다』

고 더욱더욱 생각하였다.

이 때 어느 사람이 맞잡 땅을

판다. 함으로, 학본이 반금은 곳 칠

르고 반은 명년에 청장하리란 약

속으로 그것을 샀다.

『그 땅은 매우 넓소. 그런데 그

을 지나다가 토디 니약이가 낫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열심으로

『그 땅은 매우 넓소. 그런데 그

같은 말하면 공것 맞치한가지요』

학본이 이를 들고 육화가 대발

하야, 그것을 가져 샀스면 하야,

『도시 그 땅은 얼마 잇나요』

『그 땅말삼이요. 얼마라고 한덩해

말할수 업소. 아마 로형이 일년두고

그 주위를 돌아다녀도 다 못단이

리다』

그 때서 학본이 더욱더욱 마음이

솔려서, 빛을 내서라도 그 땅을 살

양으로 결심하였다. (또잇소)

흥, 밤^밤 등^등사람^{사람}이 ^빠빠지도록 일
 이나 ^{시골}하다가, 시골^{시골}내가 더럽^{더럽}더러^{더러}나
 는 ^곳곳에^곳서 ^죽죽^죽는 ^척척^척신^신이
 『^삼삼만 ^말말^말삼^삼해보시오, ^그그^그래^래도 ^우우^우리
^림림살^림이 ^같같^같이 ^평평^평안^안한^한것^것이
^디디 ^있있^있으^으리^리까 ^또또 ^서서^서울^울 ^어어^어면^면
^피피 ^잇잇^잇스^스릿^릿가. ^또또 ^서서^서울^울 ^살살^살면^면, ^엇엇^엇던^던
^외외^외임^임에 ^빠빠^빠질^질는^는지 ^알알^알수 ^잇잇^잇습^습니^니까.
^늘늘 ^오오^오날^날은 ^착착^착한 ^일일^일을 ^하하^하야^야도 ^내내^내일은
^무무^무삼^삼 ^모모^모진 ^일일^일을 ^하하^하게 ^될될^될지 ^몰몰^몰보
^르르 ^고고, ^놀놀^놀음^음 ^이이^이라^라든^든지 ^술술^술이^이라^라든^든지 ^계계
^집집^집이^이라^라든^든지……』
^이이^이때^때 ^대대^대주^주 ^학학^학본^본이 ^들들^들의 ^말말^말다^다함^함
^을을 ^들들^들 ^잇잇^잇터^터 ^자자^자기 ^안안^안해^해의 ^편편
^을을 ^들들^들어 ^잇잇^잇드^드니, ^자자^자기 ^안안^안해^해의 ^편편
^을을 ^들들^들어 ^잇잇^잇드^드니, ^자자^자기 ^안안^안해^해의 ^편편
 『^그그^그편 ^말말^말이 ^영영^영군^군……』 ^또또 ^우우^우리^리는
 이^이러^러니 ^더더^더러^러니 ^하하^하야^야도 ^성성^성을 ^가가^가지

고 ^사사^사니, ^걱걱^걱청^청 ^없없^없습^습니^니다』
 하고 ^변변^변론^론하^하였다.
 얼마^{얼마}후^후에 ^말말^말이 ^끝끝^끝나^나고, ^다다^다 ^잠잠^잠수^수
 자^자리^리로 ^누누^누었다. ^그그^그러^러나 ^이이^이때^때에
 마^마가 ^이이^이 ^다다^다함^함을 ^철철^철두^두철^철미^미 ^통통^통 ^들들^들
 고^고서 ^발발^발간^간 ^혀혀^혀를 ^빠빠^빠불^불었^었
^이이 ^촌촌^촌 ^근근^근처^처에 ^한한^한 ^귀귀^귀부^부인^인이 ^사사
^난난^난대, ^성성^성을 ^만만^만히 ^가가^가졌^졌다. ^이이 ^부부^부인^인
^은은 ^위위^위인^인이 ^매매^매우^우 ^착착^착하^하야^야 ^작작^작인^인들은
^이이^이때^때까^까 ^한한^한번^번도 ^못못^못 ^살살^살게 ^군군^군 ^일일
^이이^이 ^없없^없터^터니, ^어어^어니^니 ^때때^때 ^무무^무삼^삼 ^까까^까 ^닭닭^닭이
^있있^있었^었 ^있있^있었^었는지 ^군군^군인^인 ^출출^출신^신으로 ^체체^체간^간 ^차차^차지
^를를 ^사사^사마^마서^서, ^이이^이 ^일일^일 ^더더^더러^러니 ^작작^작인^인들을
^괴괴^괴롭^롭게 ^글글^글기 ^시시^시작^작하^하였다.
 학^학본^본도 ^이이^이 ^작작^작인^인중^중 ^한한^한사^사람^람이^이다.

^어어^어니^니 ^때때^때 ^이이^이 ^귀귀^귀부^부인^인이 ^자자^자기^기의 ^가가^가진
^성성^성을 ^서서^서울^울 ^누누^누의^의의^의게 ^내내^내여^여판^판단 ^소소^소문^문
^이이 ^남남^남으로, ^작작^작인^인들이 ^이이^이러^러로 ^모모^모히
^고고 ^더더^더러^러로 ^몰몰^몰려^려서 ^분분^분이^이 ^걱걱^걱청^청한다.
^작작^작인^인들이 ^지지^지금 ^그그^그 ^체체^체간^간 ^차차^차지^지에^에게
^여여^여러^러가^가지^지로 ^고고^고로^로움^움은 ^당당^당하^하나, ^만만^만일
^지지^지금 ^새새^새로 ^사사^사는 ^사사^사람^람이 ^더더^더 ^잔잔^잔인^인
^각각^각박^박한 ^놈놈^놈이^이면 ^어어^어떻^떻게 ^하하^하나 ^하하^하여
^뒤뒤^뒤엣^엣 ^일일^일이 ^걱걱^걱청^청됨^됨으로, ^총총^총대^대를 ^쏟쏟^쏟아
^보보^보내^내어^어서, ^도도^도조^조는 ^더더^더 ^벌벌^벌러^러이니, ^그그^그 ^커커^커
^이이 ^땅땅^땅을 ^팔팔^팔지 ^말말^말아^아 ^라라^라 ^하하^하야^야다.
^그그^그러^러한^한 ^즉즉^즉 ^그그^그 ^귀귀^귀부^부인^인도 ^그그^그 ^릴릴^릴러^러이^이면
^구구^구려^려여^여 ^팔팔^팔것^것 ^없없^없다 ^하하^하여 ^중중^중지^지하^하야^야다.
^그그^그러^러나 ^농농^농군^군들이 ^뒤뒤^뒤에 ^생생^생각^각하^하여^여 ^본본^본
^즉즉, ^도도^도조^조를 ^만만^만히 ^맨맨^맨도 ^어어^어려^려운 ^일일
 이^이로^로다, ^그그^그 ^보보^보담^담도 ^일일^일난^난 ^김김^김에 ^모모^모다^다 ^힘힘^힘

내^었었다. 이를 보고 학본이 크게 노^았
 하야, 그런 가^축축을 쫓아^었으^었
 로^로 그때에^는 낯^창창하^려라고는 안^아니
 하^였었다.
 그러나 그뒤에도 너^무여^러번 그
 리^는한^고로, 필^경관^청에 가^서, 그
 사유를 호^소하^았다.
 그러나 농^군들은 거^기를 지^나단^다니
 는^는것이 경^위에 틀^리난 일^인줄 몰^모
 른^은다.
 그러^서가^가
 『그러^게케^번번히 해^를당^해서야 할
 수^있으나, 그^건몰^라그^렇치, 한^번
 가^르갈^아치^리라』
 하고 농^군을 붓^들어^가지고, 그 일
 이 경^위에 틀^림남^을 갈^아쳐^다. 그러

나 이^러함^이 조^금도 효^험이 없^을
 셤^뿐아^니라, 농^군들이 덕^을노^하야
 그의 가^진쌍^을헛^터려^놓치고 공
 론^하았^다.
 어^느날 밤^에 농^군한^하나 학^본
 의 가^진쌍^에들^어가^서나^무앗^나
 무^를만^히베^어넘^어떠^러다. 잇^흔날
 아^침참^에학^본이 나^무앗^을들^어보^주며,
 한^군대 나^무가 베^어넘^어쳐^잇난^고
 로, 마^음에
 『도^모지 이^{것이}누^의짓^인고, 이를
 배^상식^히지 안^이하면 안^이되^겠다』
 하고 누^군고 생^각한^즉,
 『이^것은 확^실히 시^몬이^란놈^의
 짓^{이다}』
 고 가^삼에 떠^나왔^다.

그러^서학^본이 시^몬의 밧^에
 처^서어^디에^든나^무를 갖^다두^지안^아
 니^하였^는가 하^야암^만차^자보^아도
 아^무대^셔도 보^{이지}안^이하^았다. 그
 래^서가^가시^몬으로^터부^러달^은
 말^다똥^을하^고그^때는 헤^어쳐^스나,
 그^래도 마^음에는 역^시시^몬이^란놈
 이 안^이면 누^고야 생^각됨^{으로}, 관
 가^에가^서이 사^유를 호^소하^았다.
 그러^서시^몬이 이^삼차^관가^에불
 러^가서 사^실을 당^하였^스나, 이^러단
 증거^는암^만하^야도 드^러나^지안^아
 하^았다. 그러^나학^본은 얼^른그^렇
 다 안^이한^다.
 『그^렇리가 잇^습니까. 당^신들이 일
 부^러시^몬을 비^호하^{니까}그^렇치』

그뒤에도 학본의 땅에 여러번 헛
 놓는 일이 잇는 잇난고로, 이리해셔
 더러 못난 일이 잇는 잇난고로, 이리해셔
 난 아니 되겠다 하얏스나, 자기기가 이
 땅을 떠나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
 였다.
 그러나 어니날 한 행인이 하룻
 밤 재워달라고 와셔 묵는데, 그 밤
 에 두사람이 여러가지 이야기들 하
 였다. 그 사람이 자기난 남방 홀
 가도셔 왔따 하면셔
 『그대난 땅이 어찌 좋은 모르
 는가.』 같은 것도 매우 무성하야 말
 등이다. 『남소』
 학본은 열심으로 이 이야기를 들
 으면서, 『그러면 나도 그럴데대 가셔 살까』

...이런 차음이 꿈이지 안난 곳
 은 과연 청결어진...』
 생각하얏다. 또 『우리 소며 말을 다 파라셔, 새
 로 그럴데대 땅을 살까』
 그후에 즉시 학본이 홀가로 가
 셔, 그 행인이 말하던대로, 사합한
 즉, 사실이 과연 그럴고로 그가 추
 성후에 집이며 가축이며 말꿈 파
 리가지고 새 곳으로 떠나갔다.
 그 촌에 와셔난 촌장들을 초대하
 였다. 땅이 산고로 천보담 삼배되
 난 땅을 사셔 집을 짓고 즐겁게
 지낸다.
 첫해에는 보리를 심엇더니, 가을

에 가셔 많이 추수를 하고자 한
 즉, 또 땅이 좁은것 같다.
 그러나 이 근척난 대척 기름진
 땅인고로, 잡풀의 무성함도 또한 대
 단하야 각급가다가 기껏 잘된 보리
 도 이썬분에 말나바리난 일이 잇
 다. 그래서 일꾼을 많이 둔 부자
 난 좋은 구차한 사람은 매우 어
 려워셔 결컨 블썬에 빗을 엮지 안아
 이하면 안이되난수도 잇다.
 학본은 보리를 심은대, 좀
 이 좁음으로 어니날 장사의게셔 땅
 을 엮어셔 게도 심엇다. 이때 학
 본이 장사들의 땅을 남의게 빌려
 가지고 그 리익으로 돈을 모하셔
 큰 집을 짓고 호화로히
 (二四頁 繼續)

로빈슨 절도 표류기

나는 일천 구백 삼십 이년 영국
 요크부에서 난 로빈슨 크루서란 사
 람이온데 내가 경력한 말슴을 여러
 분 앞에서 배품은 참 영광스럽게 아
 는바을시다.

나는 원래 배운 직업이 없고 평
 생에 생각하기를 넓은 하늘 큰바
 다 사이에 작은 배를 띄워, 이리로
 가서 고래의 등을 어두만지고, 커리
 로 가서 악어의 꼬리를 당겨보아, 눈
 기둥 같은 불결로 더부러 서로 마
 주치고 다닥다리는것처럼 상쾌한 일
 이 없다 하여, 케발덕분에 친인이
 되어지라고 지사위한하고 부모께 청
 원하였소이다.

그러나 우리 부친께서는 성질이 매
 우 온순하고, 남들과 같이 자기 자
 식도 편한 공부를 하고 편한 돈을
 얻어 편한 밤을 먹게 하려는바람
 이 있는고로, 항상 법률 공부를 하

여 관감사나 변호사 같은것이 되라
 고 권하시는지라, 그러므로 이런 말
 슴을 하기만하면, 구려여 그런 생각
 하지 말라 하시더니, 갈수록 나의 친
 인 되려 하는 생각이 더해갔지, 젊
 이 없어, 보채기를 더욱더욱 심하여
 가매, 하루는 나를 당신 방으로 불
 러 앉히시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성미도 패려도 하다. 케 구
 래여 위험을 무릅시고 외국으로 표
 박하여 고생을 자취하느냐. 대척배
 라고 돌아다니는것은 무슨 일에 낭
 패를 본 사람이든지, 먹고 입고 살
 수 없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아니하
 면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이나 부자
 들이 하는 일이요 할일이지……우리
 같은 중등사회의 사람이야 케 그런
 일을 한단 말이냐. 대척 중등사회는
 원 사회의 기초일뿐 아니라, 또한 과
 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 가장
 복스럽고 다행한 계급이니, 네가 만
 일 내가 이르는 말을 듣지 아니하
 고 쓸대없는 일을 하다가는, 하늘이

도리어 너를 미워하시리라』
 하시고 훈계도 같고 부락도 같고
 축원도 같이 간절하게 이르고 달
 태시니, 나도 목석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말슴을 들으며, 슬프지 않는
 눈물이 케절로 쏟아지면서 깊이 감
 동되어, 이후에는 단정코 이러한 말
 슴을 하여 어른의 걱정을 시키지 아
 니하리라고 마음을 단단하게 잡았소
 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잡히기도
 쉽고 놓치기도 쉬우며, 불이기도 침
 고 돌리기도 쉬운것이라, 하루이틀
 가는중에 이러구러 두어주일을 지내
 고보니, 조금조금 다시 나오던 외
 국 갈 생각이 어느 틈에 원 마음
 을 다 차지하여, 케 마음의 결단도
 눈같이 스러지고, 어른의 훈계도 연
 기같이 없어지고, 이때에는 게다가 한
 가지 점쳐 난다난다하는 피가 아무
 리 어른에게 말을 하여도 그리하랴
 실 허락나기는 들렸으니, 압다 이말
 처말 할것없이 나가버리는 편이 편

하리라 하고 때를 가다리던차, 우연히 홀이란 개에 갔더니 마침 친부더 상종하던 벋의 아비의 배가 던으로 떠나려는 것이 있으므로, 나도 청하고 그도 피어 즉시 가게 되어, 일봉시간도 부지 않고, 하늘이 도우사, 부모도 잘 지내고 나도 잘 다니게 하여 주유시기를 축수하고서, 일천 구백 오십 일년 구월 일일에 던 가는 풍범친을 타고 바라고 바라던 불결은 떠났소이다.

허허, 이날이 내게 무슨 업원이든지, 세상에 소년 모험자가 불행한 일을 당한 수도 많거니와, 아마 나와 같이 속히 당하고 길게 당한 일은 없으리다!

배가 함버포구를 떠난 후, 얼마아니 되어 못된 바람은 연방 불고 사나운 불결은 따라 일어나니, 그렇지 아니해도 바다에 익지 못하였거늘, 더욱 풍랑이 이러하매, 뱃멀미의 어려움은 고사하고 무섭기가 한량없이 새삼스럽게 부모의 이르는 말을 듣지

아니한 벼락이 나리나보다 하였고, 바람이 더욱더욱 불고 불결이 더욱더욱 사나울수록 무서운 생각은 침침 더하여, 아직 수일 뒤에 또 당한 곤액에 비하면 어림도 없는 적은고 생이로대, 나이 아직 어리고 경란 못한 나도 요만하여도 몹시 접을 삼켜서 산갈을 불결이 배를 때리는 대로 나를 할키려 오는 듯하게 생각되고, 배가 불결 사이를 빠지는 때에는 발서 복선이 되어 불도 들어가는가 하여, 극경중에서 여러가지 맹세를, 하느님께서 만일 이번에 내 목숨을 보존하여 다시 육지를 맡게 하시면, 그쳐 집에 들어앉아서 평생 부모의 슬하를 떠나지 아니하오리다 하고, 깊이 아버님께서 하시던 말씀을 깨달았소이다.

그러나 이른날 가서 바람도 자고 불결도 누우며 화경같은 태양이 푸른 불결에 출렁거리는 호할하고 장대한 경치를 보주, 어케까지 악마같이 무섭던 바다가 오늘 와서는 미인

같이 어여뻐 보여, 다시 이 생각 켜 생각 잊어버리고 잘도 배 타고 바다를 구경하려 나왔다 하고, 더욱더욱 결심을 굳게 하였소이다. 옛세만에 겨우 야아마우쓰 계류취(繫留處) 연풍이 불는지 풍랑이 일어나면 일시 대어서 종은날 순풍을 기다리 는곳(에) 다다라 순풍을 기다리더니 공교히 땃대로 되지 않고, 여드레 되던날에 가서는 친차 보담 터한 센바람과 사나운 불결이 일어나서, 배가 몹시 까블리더니, 여간하여서는 윈눈도 끔짝 아니하던 천장도 이번에는 매우 염려를 하여 배에 구멍이나 나지 아니하였다 하여, 두루두루 살피면서 들들이

『하느님 살려줍시사!』
하는지라, 이 소리를 들고보니, 검이 다시 나기를 시작하였고, 동무들이 이리 하다가는 파신하고야 말쉴단 말을 들은즉, 청신까지 얼뎠하였소이다.
하늘은 나의 속이 라고 피가 마르느것을 불상히 여기시도 아니하시

는지, 갈수록 모진 바람의 위세가 맹렬하여가며, 커덕때 가서는 하는수 없으며 바람에 채우는 앞 돛대를 꺾어버리고, 그리하여도 초침이 없으며 돛대까지 잘라버렸으나, 종시 낮지아니할뿐 아니라, 배밑에 구멍이 나서인정 없는 물이 함부로 연방 들어와서, 불구에 어복을 배불리할 형편이라, 나중에는 배와 사람이 다 죽는것보담은 사람만이라도 살아나는것이 옳다하여 종신을 풀어 내려가지고 작은 배에 많은 사람이 실려서, 죽을듯죽을듯한 경우를 수없이 당하고 겨우은치 해안으로 도착하여 놀란흔이 비로소 진척이 되었소이다.

육지에 오른뒤에는 다행히 여러인후한 사람들의 신세를 입어, 마른의복도 얻어입고, 더운 음식도 얻어먹어, 매우 피곤한것을 위로하였고, 또한 관가에서와 초중에서 출역을 놓아, 여러 동무들에게와 나에게까지 노수를우수히 주면서, 홀이나 린돈으로가기를 권하나, 나는 다른 사람과달

라 이미 도망질하여 나온길ियो, 그래도 배 타고 다닐 마음은 조금도 줄지 아니한고로, 그렇게 다침하게 권한는 말도 능히나의 굳게작침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소이다.

여기서 수일간 편히쉬 뒤에 다시길을떠나, 육로도 린돈을 향하고갈새, 바다우에서 당한 고생담보담털하지 않는 고생을 가추가추 맛보고겨우 린돈에 다다랐소이다.

린돈에 와서는 얼마동안 머무르는 사이에 전차에 고생한일도 차차잊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차차 사라져가며, 이때 아프리가로가는 배를 랐는데 이때에는 주머니속에 돈이 꽤 많이 있었는고로, 쭈니아 해안에 가서, 토인으로 더부러무역할양으로 여러가지 불화를 실었소이다. 그러므로 사공노릇은 그만두고선장의 권한는 말대로 배라고 가는중에서 수학과 행선법을 배웠소이다. (또잇소)

宋完植 編

新最 日鮮大字典

▲四六判 五百八十頁
▲印刷 麗寫眞版
▲裝幀 堅實 漢裝

◎定價 一圓五十錢

送料 十錢

이서 特色을 갖후어 있다. 字典 普通 다른 여러가

一、鮮 日本、中國의 俗字까지 無 漏 收載한것. 訓釋을 新綴字法(統

二、朝 鮮文 訓釋을 新綴字法(統 一)으로 한것. 新綴字法(統

三、解 釋을 가장 詳細히 한것. 四、古 代의 儀器、服飾 및 動

五、植 物을 插圖한것. 原語를 對 照한것. 六、古 代의 地名、山名、水名、

七、國 名等을 現今의 것과 對照한것. 八、音 考가 篆書를 插入한것.

〔本出版部로 注文하신이 에게는 二割引 提供, 送料는 本部 負擔〕

조선역사강화(二) 상고편

**삼국대
립되는
단서**

낙랑군이 쫓겨나간 자리, 곧 대동강 한강의 사이에는 낙랑군을 북방에서 나 리밀던 고구려(高句麗)와 남방에서 치 받치던 백제(百濟)가 서로 맞서고, 그 때에 백제의 동쪽에 서 차차 세력을 길러가는 신라(新羅)가 또 한복을 들어서, 드디어 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삼국의 패권(霸權)을 경쟁하는 새 국면(局面)이 벌어지 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때로 말하면, 조선민족의 사 는 주위에 서북에는 신비(鮮卑), 동남에는 왜(倭)와 같은 유력한 민족이 일어나서, 이베와 겨루어가 러면, 먼저 안으로 민족적 통일을 성취하여야 할 형 편이었으므로, 삼국중에 누구든지 월신 나은 곳을 얻 어서 이 사명(使命)을 응하려는 기운(機運)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고구려는 본디 부여의 한 별부(別部)로, 고주몽(高朱蒙)이란이를 시조로 하고, 압록강 좌우를 국토로 하여, 가장 먼저 발달한자이며, 백제는 또한 부여의 한 지파로, 온조(溫祚)란이를 국조로 하여, 마한(馬韓)이라는 한(韓)의 서쪽 여러 작은 나라를 침차 로 통합하고 한강 일대에 발을 뻗으려하는자이며, 신

라는 진한(辰韓) 변한(弁韓)이란 한의 동쪽 여러 작 은 나라를 단합하여 가장 나중으로 나라의 체도를 이루고, 고구려 백제의 결고트는 동안에 우적 세력을 길러서, 또한 한강 방면으로 진출한자이니, 예로부터 권하는바에는 삼국의 건국이 단군의 뒤 이천년 권 후에 있었다 하나, 실상 고구려는 월신 먼저요, 백 제는 매우 뒤요, 신라도 더욱 나중입니다.

**고구려
어가
나다
일려**

고구려는 비류(沸流) 골자기 졸보천(卒本川)을 끼고 성립된 산곡 사이의 한 작은 나라이라, 토지가 협착하여 생활의 자료가 부족하므로 자연 나라밖으로 진출(進取)하는 풍이 생기고, 또 주위에 있는 강대한 이민 족(異民族)들과 단단한 결과로 국민적 원기가 항상 왕성하여 넘쳤으며, 태조왕(太祖王) 같은 훌륭한 임금 과 을와소(乙巴素) 같은 어진 정승이 이어 들어서 밖으로 국토 회복과 안으로 민력 함양에 아을려 힘 을 써서, 국세의 발전이 자못 놀랄만치 있었읍니다. 이러한지 수백년에 북으로 말갈(靺鞨)을 복속하고 동 으로 옥저(沃沮)를 병합하고, 서으로 요동(遼東)을 거 두어들이고, 남으로 낙랑을 구축하여, 그 위무가 크 게 날리었으나, 마침 서북에는 신비족(鮮卑族)이 새 로 일어나서, 대륙 방면으로, 발칸할 길이 막히므로, 고구려의 국책(國策)이 남으로 반도의 통일을 주로

하게 되고, 더욱 서기 三四二년에 환도성(丸都城)이 선비족의 모용씨(慕容氏)에게 파과를 당하며, 이년에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어서 그 남진(南進)하는 봉예(鋒銳)가 더욱 새롭게 되었읍니다.

고구려 성시대

이로부터 고구려와 백제는 대등강한 강(江)의 사이에서 일진일퇴의 형세로써 패권을 다투새, 백제에도 근초고(近肖古) 근구수(近仇首) 같은 영주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거국일척적, 노력은 더욱 강렬한 것이 있어 소수림왕(小獸林王) 시대에는 교육을 진흥한다, 법률을 반포한다, 또 불교를 수입한다 하여, 크게는 국력 충실을 꾀하고, 그 아들 광개토왕(廣開土王)이 서해, 영특한 자질로써 사방을 정복하여, 재위 이십이년(서기 三九一—四一一)의 사이에 무릇 육십 사성, 일천 사백촌을 천과하여, 그 위무가 반도의 전부를 덮치고, 고구려의 남쪽 지경이 동에서는 태백산(太白山)과 증부에서는 남한강(南漢江) 상류와 서쪽에서는 북한산(北漢山)에 미치니, 이 결과로 백제의 영토는 약 이분의 일이나 축소되고, 신라도 또한 모처럼 차지하였던 영북(嶺北)의 땅을 잃었으며, 반도 남안의 틈을 엿보던 왜도 이때로써 자취를 거두게 되었으며, 또 그 아들 장수왕(長壽王)이 또한 아비의 사업을 이어서, 재위 구십 칠년의 사이에 북으로 당

시 지나의 북쪽을 차지한 위(魏)와 연합하여, 몇 년의 구적인 모용씨(慕容氏)의 연(燕)을 멸하고 그 요동의 땅을 거두며, 남으로 신라와 공수동맹을 하고 민심이 풀어진 백제를 침습하여 그 왕을 죽이고, 국도 한성(漢城) 지방(廣州)을 빼앗아, 백제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重傷)을 주게 하고, 그 접계가 직산(稷山)보(報恩)의 선(線)에까지 남진(南進)시키었으며, 또 아들 문자왕(文咨王)도 재위 이십팔년의 사이에 북으로 모국이던 부여(扶餘)를 완전히 병합하여 송화강 좌우를 중심으로 하여 북만주가 다 그 관도에 들고, 남으로 백제와 신라의 북쪽 지경을 먹어서 반도의 삼분지이 이상이 그 소유로 돌아가서, 동방에 건국한 자중 권후에 유례가 없는 큰 판도를 이루니, 이 넷 임금, 일백 육십년사(서기 三七一—五三二)는 실로 고구려의 황금시대요, 말은 삼국 병립이라 하여도, 기실 백제와 실라는 칠전팔도(七顛八倒)로 간신히 잔명을 보전하던 시이었으며, 다만 남북 두쪽으로 다 그 발권이 터 좀 할말하지 못하기는 선비의 뒤에 클안(契丹)이 이어 일어나서, 털미를 잡고 있기때문으로 보취(步趣)가 자유롭지 못하였읍니다.

백제가 남으로 쫓겨가

백제는 장수왕(長壽王)에게 치명적 타격을 받고, 서기 四七五년에 도읍을 웅진(熊津) 지방(公州)으로 옮기고, 한가지

고구려의 압박을 받든 관계상으로, 신라로 더부러 숙원(宿怨)을 풀고, 화친을 맺어 환난에 서로 구원하여 한때 소강(少康)을 얻었으나, 신라의 국력이 차차 발전되매, 도리어 동쪽 지경을 침식하기 비롯하여 양쪽으로 적을 받으며, 五三八년에는 다시 도읍을 부여(扶餘)로 옮기어서 그네의 칼날을 피하기에 힘썼으며, 형세가 이렇게 외로우며 또한 고구려의 압박을 면하는 편으로 이해가 일치되는 왜로 더부러 커질로 화호가 되어, 백제는 문화로써 왜를 가르치고, 왜는 군사로써 백제를 돕는 관계가 생기었음니다.

【주해】一、낙랑군이 쫓겨남 〓 낙랑군은 한(漢)나라 사군의 하나이니, 다른 삼군과 한가지 서기전(西紀前) 一〇八년, 한무제(漢武帝) 원봉(元封) 삼년에 설치되었다. 겨우 이십칠년을 지나, 한소제(漢昭帝) 시원(始元) 오년에 사군을 이군으로 고쳐 임둔군(臨屯郡)과 진번군(眞蕃郡)을 폐하고 낙랑군과 현도군(玄菟郡)만 남겨두었다. 고구려제 십오대 미천왕(美川王) 십사년(서기三一三년)에 이르러 낙랑군 태수 장통(張統)이 고구려에 쫓겨서 달아나므로, 고구려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니, 우리 땅에 한나라의 군현이 이로써 아주 소멸되었다. 사군이 되던 처음으로부터 이때까지 사백 이십 이년이였다.

二、선비(鮮卑) 〓 동호(東胡)의 일파. 동몽고(東蒙古) 지방에 사던 족속.

三、고주몽(高朱蒙) 〓 북부여(北扶餘) 임금 해모수(解慕漱)의 아들로, 동부여(東扶餘) 임금 금와왕(金蛙王)의 양자가 되었다. 나이 일곱살에 궁시(弓矢)를 만들어 쏘아 백발백중하였다. 금와왕의 아들이 일곱이 있어, 그 재주가 다 주몽만 못하므로, 그 만야들 대소(帶素)가 왕께 말하여 주몽을 죽이자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고,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이 그 날랜 말은 골라서 적게 먹이여 파리하게 하고, 노둔한 말은 살찌게 하였더니, 왕이 그 파리한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뒤에 사냥하러 갔는데, 주몽이 짐승 잡은것이 가장 많았다. 이때 왕자들이 시기하여 주몽을 죽이려고 꾀하는것을 그 어머니 유화(柳花)가 알고, 아들 주몽에게 말하여 피하여 달아나게 하였다. 주몽이 그 벗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부(陝父) 등 세사람을 데리고 남방으로 달아나 졸본천(卒本川)에 이르러, 거기서 고구려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東明聖王)이 되니, 그때 나이 스물 둘이었다.

四、온조(溫祚) 〓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東明聖王)의 아들이니, 동명성왕이 북부여(北扶餘)에 있을 때에 낳은 아들 유리(類利)가 와서, 태자가 되매, 거기서 안전히 있을수 없는 처지이므로, 그 형 비류(沸流)와 의논하고 열 시하를 데리고 남방으로 내려왔다. 부아악(負兒嶽) 三角山)에 올라서 살만한 땅을 바라본 후에, 비류는 미추홀(彌鄒忽) 仁川)로 가고, 온조는 위례성(慰禮城) 廣州)으로 가서, 각기 나누어 살았다. 미추홀은 습기 많

고 물이 짜서 살기 불편하고, 위태성은 토지가 비옥하여 백성이 많이 모이어서 편안히 살았다. 그뒤 비류가 죽은 뒤에 온조가 그 두 곳의 백성을 합하여 백제(百濟)나라를 세웠다.

五, 태조왕 高句麗 제 六대 임금. (53—146 A. D.)
 六, 을파소 高句麗 고국천왕(故國川王) 때 (190 A. D.)의 어진 정승.

七, 말갈(靺鞨) 高句麗 通古斯族(通古斯族) 곧 여진(女眞)의 족속이며, 음루(挹婁) 물길(勿吉)의 이름이 있고, 우리 삼국시대에 말갈로 알게 되었다.

八, 옥저(沃沮) 함경도 지방에 있는 부족.
 九, 환도성(丸都城) 高句麗의 서울. 삼국강 하류 초산(楚山) 건너편 땅.

一〇, 모용씨(慕容氏) 본디 선비족속으로 일천 육백 년전에 모용왕(慕容皝)이 내몽고(內蒙古) 지방에서 연(燕)나라를 세웠다. 연이 고구려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자주 천구(侵寇)가 있었으며, 고구려왕(故國原王) 때 (서기三四五年)에 침입하여 서울을 빼어 크게 파괴하였으며, 고구려는 이때부터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었다.

- 一一, 근초고왕 高句麗 제 十三세 임금. (346—375 A. D.)
- 一二, 근구수왕 高句麗 제 十四세 임금. (375—385 A. D.)
- 一三, 소수림왕 高句麗 제 十七세 임금. (371—384 A. D.)
- 一四, 광개토왕 高句麗 제 十九세 임금. (396—412 A. D.)
- 一五, 장수왕 高句麗 제 二十세 임금. (413—491 A. D.)
- 一六, 문자왕 高句麗 제 二十一세 임금. (493—531 A. D.)

출판계소식

요사이 出版되는 書籍은 거의 다 「마춤법 통일안」의 의지한것이라 볼수 있다. 이것으로써 우리의 統一의 機運에 達하였다 할것이다. 이欄에는 다달이 新刊書 籍中으로서 한글 맞춤법대로 쓴것만 대강 紹介한다.

單卷聖經註釋 예수교 성경의 글뜻을 서양 여러학 자들의 해석한것을 한글로 번역한것. 사륙배판 권 무 육호 할자로 일천 오백여페이지의 큰 책. 정가 칠원. 新生社 발행

應用自在通俗漢醫學原論 한방의학의 원리를 평의

한 문장으로 쓴것인데, 비록 초학자라도 능히 자 득할수 있는 책. 사륙판 사백사십페이지. 정가 삼원.

趙憲泳씨 저술. 東洋醫藥社 발행

만국주일학교공과 예수교 주일학교 교과서. 오만부 인쇄. 전조선 출판 부수로 첫째. 예수교서회 발행.

最新日鮮大字典 한문 자전으로 한글 새 철자법으로 해석한것으로는 이것이 처음. 사륙판 오백 팔십여페이지

정가 일원 오십전. 宋完植씨 저술. 東洋大學堂 발행.

인의 心琴 저자 김희규씨는 아직 세상에 들어난 시

인의 아나나 심년의란 ○렌 세월을 두고 은인자중하 여 시조를 연구하여 출판한 처녀 시조집. 漢城圖書株式會社 발행

出刊豫告

正龍飛御天歌

附古語解

龍飛御天歌는 世宗大王 二十七年(訓民正音頒布 前一年)에 한글 使用의 첫 試驗으로 쓴 책이다. 이것은 藝術로 歷史로 文學으로 言語로 크게 研究할 價値가 있다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그 正文에다 古語의 註解를 달고, 끝에 古語 語彙를 가나다順으로 버려 써서 古語辭典을 兼用하기에 足하다. 朝鮮語를 研究하는 이로 마땅히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三月末發行) 定價 五十錢 (한글 讀者로서 三月末까지의 注文에 限하여 特價 三十錢)

朝鮮語學會規則

- 一 本會는 朝鮮語學會라 함
- 二 本會는 朝鮮語文의 研究와 統一을 目的함
- 三 本會는 京城에 設
- 四 但 地方에는 支會를 두기도 함
- 五 本會의 入會는 本會員의 推薦으로 幹事가 審査한 後에 許諾함
- 六 但 入會를 許諾한 때에는 入會金 壹圓을 내어야 함
- 七 本會會員은 每年 會費 貳圓을 負擔함
- 八 本會會員으로서 一年 동안 한번도 모임에 出席이 없고 會費를 내지 아니한 이는 別會員으로 編入함
- 九 但 退會를 願하는 이는 幹事長에게 退會를 請하여야 함
- 十 本會의 目的과 事業을 贊成하는 이는 本會의 贊成員으로 함
- 十一 本會에는 任期 一年의 幹事 三人을 두되, 그중에서 幹事長 一人을 互選하여 本會를 代表하게 함
- 十二 本會는 每年 四月에 定期總會를 열되, 本會員 三分之一 以上의 出席이 要함
- 十三 但 定員에 達하지 못할 때는 在京 會員數의 三分之一 以上으로도 開會함을 得함
- 十四 必要한 때에는 臨時總會를 열기도 함
- 十五 本會는 每月 한번씩 (월재 土曜日) 月例會를 열음
- 十六 本會는 本會의 目的을 이루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業을 行함
 - 가 講演會
 - 나 講習會
 - 다 講義錄, 學報, 研究叢書, 調查報告書, 關係 古文 獻, 其他 必要 書籍의 出版
- 十七 本規則을 고치려 할 때에는 總會의 決議를 얻어야 함
- 十八 本規則에 未備한 것은 幹事會 또는 總會의 決議로 行함

남은 말씀

이번 호는 꼭 그때에 내 려 하겠더니, 편집인의 여행 함과, 구력 청초 공장 휴업과 기타 여러가지 사경으로 또 늦게 되어 매우 죄송합니다. 이 다음은 될수있는대로 일찍 내도록 하겠나이다.

昭和十年 一月三十日 印刷
昭和十年 二月一日 發行

【定價 七錢】

京城府花洞一三番地 編輯兼 發行人 李 允 宰

京城府堅志洞三番地 印刷人 金 鎮 浩

京城府堅志洞三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花洞一三番地 發行所 朝鮮語學會出版部

振替京城一〇三六番 京城府堅志洞三番地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電話(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七六六〇番

李 殷 相 著

朝鮮史話集

三國時代篇

定價 壹圓
書留送料 十八錢

四六版三百頁 美麗插畫二十葉 空前的美裝 空前的廉價

劇的要素가 無盡藏

興味百퍼센트 小說以上

『本著는 三國建國으로 부터 近代 李朝末에 이르기까지 前後兩天載의 朝鮮史속에서 或은 國家의 興亡과 義士의 血戰 或은 逸客의 諷諭와 奇傑의 閑事 或은 君王의 外傳과 卍氓의 情話 或은 婦女의 美舉와 童蒙의 逸聞等 이로 區別하기 어려운 온갖 史譚의 材料를 年順으로 採錄한 것이 다』 (著者)

京郷各書店에서 販賣。萬一 없으면 本社로 直接注文하시오。

內容見本進문

總販賣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振替京城七六六〇番

漢城圖書株式會社



昭和十九年四月十一日(第三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一回發行

第三卷 第一號